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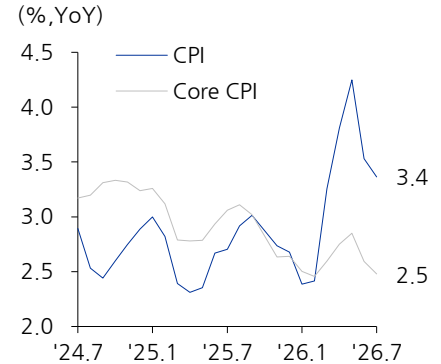
Global Economy

경제/자산배분 방인성(PhD)
6145/isbang@eugenefn.com

7월 물가: 약해진 인상의 명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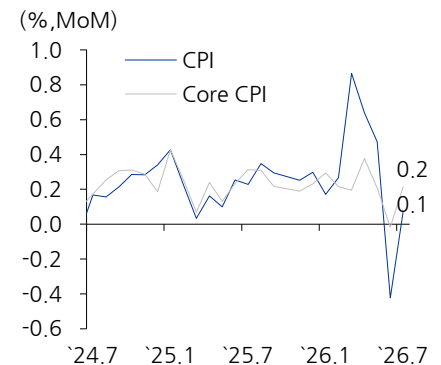
- 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+0.1%, 전년 동월 대비 +3.4%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. 6월(-0.4%, +3.5%)에 이어 2개월 연속 둔화된 흐름임.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+0.2%, 전년 동월 대비 +2.5%로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함.
- “ 5월 +4.2%로 정점을 기록한 헤드라인 물가는 두 달 만에 0.8%p 하락함. 이는 지난 5월 리뷰에서 제시한 '2Q 정점 후 안정화' 경로에 부합하며, 당시 전망치(6월 +4.0%)보다도 빠른 속도의 둔화임.
- “ 둔화의 동력은 에너지임.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-1.5%로 6월(-5.7%)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고, 휘발유는 -2.9%(6월 -9.7%) 하락함.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형성된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돌려진 결과임. 다만 전년 대비로는 에너지 +14.7%, 휘발유 +24.6%로 기저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음.
- “ 주거비는 전월 대비 +0.1%로 2개월 연속 최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고, 전년 대비 상승률도 3.2%까지 하락함. 자가주거비와 임대료는 각각 +0.3%로 소폭 반등했으나, 숙박비가 -2.8% 하락하며 전체 주거비를 억제함. 4월 섰다운 관련 통계 왜곡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판단함.
- “ 근원 서비스는 +0.2% 상승에 그침. 항공요금(+2.2%)과 의료(+0.4%, 병원 서비스 +0.5%)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으나, 처방약(-0.8%, 3개월 연속 하락)과 자동차보험(-0.3%)이 이를 상쇄함.
- “ 반면 근원 상품은 +0.2%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함. 중고차(+0.4%), IT 상품(+1.4%), 귀금속(+2.2%)이 상승을 주도했음. 관세 전가가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,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으로 판단됨.
- “ 에너지 충격의 근원 물가로의 2차 파급은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, 물가 상승의 광범위한 확산 역시 나타나지 않음.
- “ 다만 8월은 다시 부담 구간임. 8월 12일 브렌트유는 90달러, WTI는 84달러에 근접했고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.14달러로 재상승함. 8월 에너지 물가가 상승 예상. 다만 헤드라인 물가는 3%대 중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함.
- “ 7월 FOMC는 기준금리를 3.50~3.75%로 동결했으나 3명의 위원이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함. 하지만 7월 비농업 고용이 -2.3만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근원 물가가 2.5%까지 하락하면서 매파의 명분은 약화됨.
- “ 9월 FOMC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며, 현재 시장이 반영한 9월 인상 확률은 40% 수준임.

7월 헤드라인 물가는 +3.4%yoy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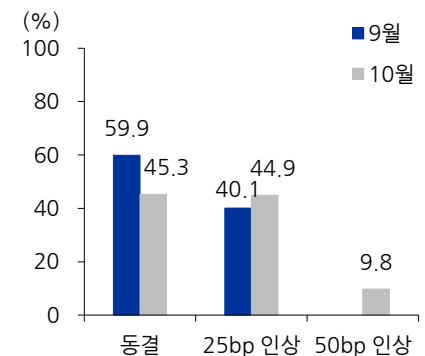
자료: BEA, 유진투자증권

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+0.2%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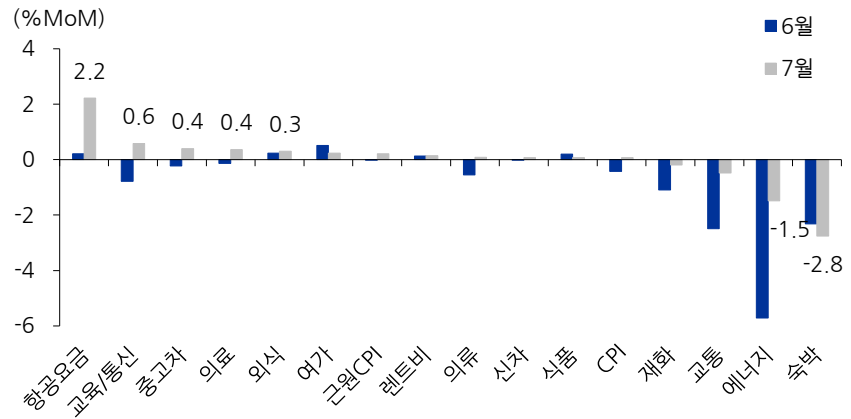
자료: BEA, 유진투자증권

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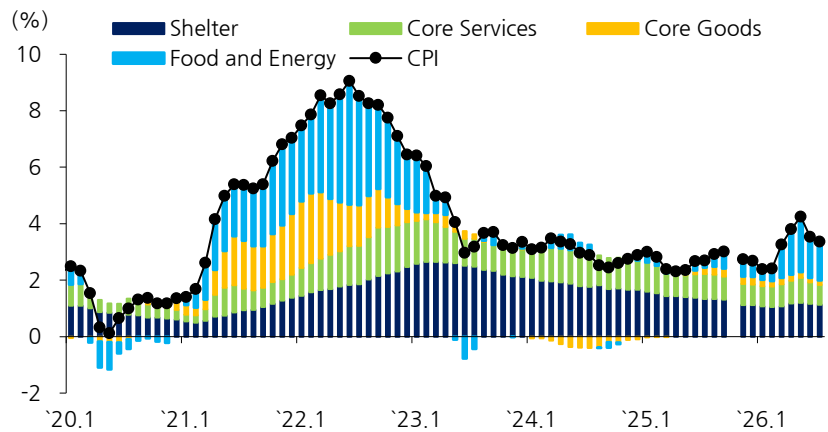
자료: CME FedWatch, 유진투자증권

주요 품목별 전월 대비 상승률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헤드라인 CPI에 대한 기여도(전년 동월 대비)



자료: FRBSF, 유진투자증권

실질 임금(임금 상승률 - 소비자물가 상승률)



자료: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